

전남도, 국제적 바이오 인재양성 나선다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연세대
외국인 교육생 백신 시설 견학·실습
아시아개발은행 40명 현장교육 예정

전라남도는 최근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이 현장형 국제적 바이오 인재양성을 위해 연세대 바이오공정인력양성센터(K-NIBRT 사업단)와 서면 업무협약을 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향후 백신 생산공정 교육을 받는 연세대 바이오공정인력양성센터의 외국인 교육생은 화순백신산업특구 백신 전주기 기반시설을 견학하고 생산현장에서 실습 교육을 받게 된다.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은 올해 10월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ADB) 교육생 40여 명에게 현장교육을 할 예정이다.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과 연세대 바이오공정인력양성센터는 이번 협약을 통해 바이오산업 분야 인재양성에 적극 협력하고, 나아가 세계와 국가의 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해 협력체



연세대 바이오공정인력양성센터와 업무 협의.

/전남도

제를 견고히 할 방침이다.

앞서 두 기관은 코로나19 이후 세계적으로 관심이 높아진 백신 생산공정인력 양성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기관별 특장점을 살려 국내외 백신 생산공정 인재 양성 이론과 현장실습 교육을 결합한 현장형 인재양성 협력에 뜻을 모았고, 그 후속 조치로 이번에 협약을 했다.

연세대 국제캠퍼스에 있는 바이오공정인력양성센터는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 등의 지원을 받아 21세기 대한민국 성장동력산업 중 하나인 바이오

헬스 산업의 핵심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은 바이오 관련 지방자치단체 산하 연구기관으로는 국내 최대 규모로 화순, 나주 등에 6개의 특화센터를 두고 있다. 특히 화순 생물약연구센터는 2014년부터 자체 시설을 활용해 매년 취업준비생 등에게 바이오의약품 생산공정 교육을 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206명에게 교육을 완료했다. 이 중 157명(76%)이 취업하는 등 높은 취업률과 생산공정 전문 교육기관으로서 입지

를 견고히 하고 있다.

윤호열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장은 “세계는 이제 미래 유망산업인 바이오 분야에 적극 투자하고 있다”며 “바이오산업 발전에 꼭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고 화순백신산업특구를 글로벌 인력양성 중심지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22년 2월 코로나19 장기화로 나타난 국가 간 백신 불평등 현상 완화를 위해 한국을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 국가로 지정했다.

/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부산시

고용노동청과 복지·고용 강화

부산시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15일 오전 10시 시청 7층 국제회의실에서 ‘복지·고용 연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저소득층 등 복지 수급자가 취업을 통해 탈수급 및 자립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체결식에는 안병윤 부산시 행정부시장, 양성필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이 참석해 복지·고용정책의 연계 강화를 선언하고, 지자체 복지사업과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토대로 복지·고용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했다.

이를 통해 연간 1만 3000여 명의 복지사업 참여자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안내할 수 있다.

/부산=구현재 기자 hjkoo@

김해시

한국마사회, 지역문제 해결 협약

경남 김해시는 한국마사회 부산경남지역 본부와 지역문제 해결과 사회가치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양 기관은 민관공 협력체계 속에 한국마사회 부산경남지역본부의 기부로 다양한 지역문제를 발굴하고 해결을 추진한다.

협약을 계기로 그동안 경남지역 전반에 걸쳐 이뤄졌던 한국마사회의 기부사업이 김해시에 집중된다.

지난해 2개 사업 2000만원이던 기부사업이 올해 4개 사업 6000만원으로 확대된다.

/김해(경남)=이도식 기자

경북도

연가·유연근무제 적극 활용 지시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가정의 달을 맞아 주변의 이웃과 함께하고 일·가정이 양립하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 직원 연가 및 유연근무제를 적극 활용하도록 지시했다.

특히, 코로나19로 방문을 자제해 왔던 다문화 가족과 홀로 계시는 어르신들을 찾아 안부를 묻고,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게 관심을 갖고 함께 하라고 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도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일과가정이 균형을 이루는 근무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가정의 달을 맞아 부모님을 찾아뵙고 재충전을 통해 모두가 행복한 경북을 만드는데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경북=장영우 기자 ycyw57@

광양시

‘도민과의 대화’ 개최

전남도가 도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도정에 반영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2023년 도민과의 대화’를 오는 22일(월) 오후 3시 광양시청 회의실에서 개최한다.

도민과의 대화는 도지사가 22개 시군을 순회 방문하며 전남도의 비전 및 도정 주요 현안을 도민들에게 설명하고,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며 답변하는 연례 행사이다.

지난해에는 대통령선거와 전국동시지방선거로 미개최했으며, 2021년 이후 2년 만에 개최되는 올해 도민과의 대화는 글로벌 경기 침체와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광양(전남)=전정신 기자 spirit@

‘하동세계차엑스포’서 1200만 달러 수출협약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개최
15개사 바이어·도내 76개사 참가

2023하동세계차엑스포가 열린 하동군에서 해외바이어 수출상담회를 개최해 1200만 달러어치의 수출협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이뤘다.

경남 하동군은 경남도와 공동으로 지난 12일 컨설팅리조트 지리산하동에서 2023하동세계차엑스포와 연계한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미국, 호주, 멕시코, 브라질 등 15개 사의 해외바이어와 76개 사의 도내 수출업체가 참가해 수출에 관한 협상과 상담이 이뤄졌다. 그 결과 1200만 달러에 달하는 수

출 협약이 체결됐다.

이번 성과는 하승철 군수의 적극적인 중남미 시장의 공략으로 이뤄졌으며 멕시코 가루녹차 시장 80% 점유율 목표도 지속적인 시장개척의 결과이다.

군은 앞으로 중남미 시장 수출 확대를 위해 브라질과 칠레 등으로 하동 녹차 수출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ONCEROMI 브라질과 ㈜쌍계명차(대표 김동근)은 하동 녹차와 전통차를 멕시코와 브라질에 확대 수출하기로 했다.

2023하동세계차엑스포와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는 지역경제발전과 녹차 산업의 성장을 위해 지속해서 개최될 예정이다.

/하동(경남)=이도식 기자 metrobusan@



보성군, 휴식과 치유 숲에서 교직원 직무교육 가져, ‘차와 함께 떠나는 환경 교실’ 특수분야 교육 시작_차밭(보림제다)에서 차잎 따기를 힐링 투어 체험을 하고 있다.

/보성군

제암산자연휴양림서 교직원 직무연수

‘특수분야 직무연수 1기 교육’ 개최

보성군은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제암산자연휴양림 내 치유센터에서 전국 교사 및 교육 전문 직원을 대상으로 ‘2023년 상반기 특수분야 직무연수 1기 교육’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2023년 상반기 특수분야 직무연수 1기 교육’은 차(茶)와 함께 떠나는 환경 교실’이란 주제로 8월 10일까지 진행된다.

총 180여 명의 교육생을 6기로 나눠 30여 명씩 1박 2일 동안 진행하며 9월부터 2024년 1월까지의 하반기 교

육을 추진할 예정이다.

교육은 분야별 전문 강사의 지도하에 ▲환경 교육(도시 숲과 미세먼지), ▲차(茶) 명상을 통한 정신 건강 및 심신 안정 교육, ▲목공예(우드버닝) 체험, ▲족욕 체험, ▲차밭 힐링 투어(차잎 따기, 차 만들기) 체험 등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으로 이뤄졌다.

한편, 보성군은 제암산자연휴양림과 치유센터를 이용하기 위한 교육 및 대학교 MT 신청자가 줄을 잇고 있으며 현재까지 60여 개 팀 4천5백여 명이 예약했다고 밝혔다.

/보성(전남)=양수영 기자

안동시, 안전체험관 부지 최종 선정

상주시 공동... 도양리 일원 6.7만㎡

안동시(시장 권기창)가 경상북도 안전체험관 부지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상주시와 함께 최종 후보지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 1개 시·도, 1개 안전체험관 건립 계획에 따라, 지난 3월 경상북도는 도내 23개 시·군을 대상으로 안전체험관 부지 공모를 실시했다.

지난 5월 12일 경북 여성가족플라자에서 개최된 부지 공모 심의위원회는 입지 여건, 사업의 적기 진행 가능성, 균형발전, 교통접근성, 교육수요, 인근체험관과의 거리, 추진의지,

미래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안동과 상주 두 곳을 최종 선정했다.

안동시는 안전체험관 후보지로 풍천면 도양리 일원 67803㎡ 부지를 확정하고, 경북 중심 도시로서 사통팔달의 교통접근성, 경북 균형발전의 최적지라는 점을 범시민 캠페인 운동과 함께 호소하며 최종 후보지 선정에 이끌어 냈다.

특히, 이번 부지 공모 심의위원회에서 권기창 시장이 직접 발표자로 나서 유치의 당위성 등을 피력하며 적극적인 추진의지를 보여준 점도 높이 평가됐다.

/안동(경북)=이상호 기자 leesh0412@

경주 대표 관광 ‘신라달빛기행’ 운영

야경 활용한 체험형 힐링 행사

경주의 대표 야간관광 프로그램인 ‘신라달빛기행’ 지난 5월 13일을 시작으로 10월 14일까지 본격 운영된다.

신라문화원이 주최하는 신라달빛기행은 지난 1994년 칠불암 달빛기행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첨성대(별), 월정교(달) 등 다양한 문화유산이 주제로 경주의 아름다운 야경을 활용한 체험형 힐링 관광상품이다.

올해는 그간 진행된 행사와는 달리

달빛기행에 앞서 13시 30분부터 무열왕릉과 서악동고분군, 불국사를 방문해 문화재 답사는 물론 음악회 감상과 사물소리명상 등을 추가하는 특별 이벤트도 5·10월 펼쳐진다.

프로그램은 17시 30분부터 21시 까지 20명에서 40명까지 한 팀을 이뤄 운영된다. 월정교 안내부스에서 백등을 배부 받아 계림, 월성해자, 첨성대까지 달빛을 따라 별자리 스킨 프린팅, 셀프 포토존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경주(경북)=이상호 기자